



# 비육성적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기술

안기홍 역  
((주)도드람부장·돈심회)

양돈의 경영성과를 분석해보면 번식성적에서는 매년 진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비육성적에서는 돼지의 육종개량, 사육시설의 진보, 자료의 질적인 향상, 사양기술의 진보 향상 등에서 대폭적인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개선되었기는 커녕 오히려 저하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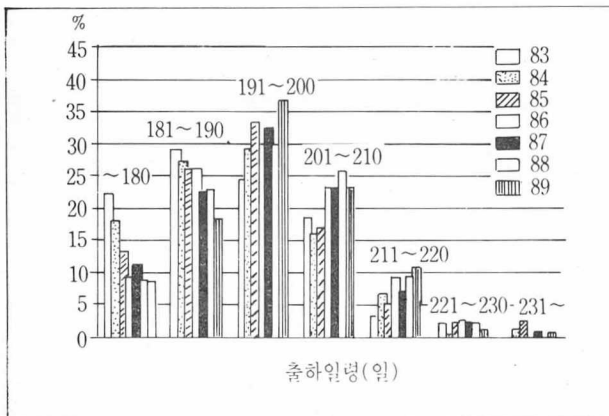
향이 있다.

그 때문에 번식성적 향상에 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비육성적 저하에 의한 손실이 대폭적으로 상회하므로 양돈경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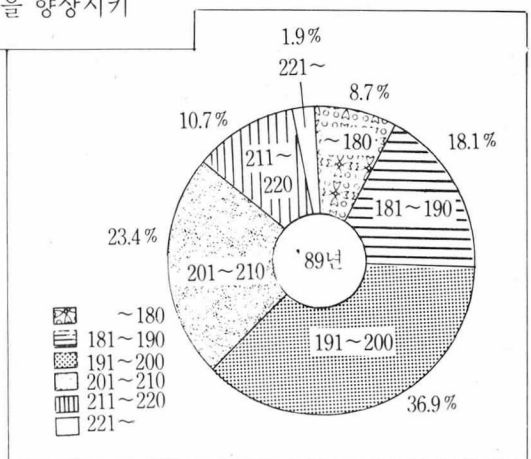
안정된 양돈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육성적을 향상시키

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1983년부터 1989년까지의 연차별 비육출하 일령은 180일령이지만 181~190일이 18.1%, 197일령 이후가 전출하돈의 2/3를 점유하고 있다(역자주: 110kg 출하: 비육돈 사료급여기준).



<그림 1> 연차별 출하일령의 분포



<그림 2> 출하일령(1989년)

자돈을 1두 생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에 비해서 자돈을 비육해서 출하하기까지 요구되는 비용은 3배 이상이기 때문에 자돈을 비육해서 출하하기까지의 사양관리를 다시 살펴보고 번식돈과 똑같이 충분히 유의해서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양돈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없다.

그래서 비육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양관리상의 주의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단계마다 발육을 체크한다.

### ○ 농장고유의 성장곡선을 만든다.

이상적인 비육출하 일령은 180일령이고, 시장성이 최고로 높은 지육체중은 68~74kg, 지육등급규격 “상” 이상의 합격율을 60% 이상이라고 설정되어져 있다. 따라서 출하시의 육돈은 생체중에서 108~113kg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

또 일본 격부협회의 지육등급 합격 “상” 이상의 합격율을 60% 이상의 우량한 육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어떤 단계에서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근년 번식성적은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는데 비해서 그것에 따른 비육사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좁은 곳에서의 사육이 불가피하므로 질병의 만연, 상재화, 출하일령의 대폭적인 지연, 비육성적의 부진(육성의 불량, 육질의 불량, 후지, 박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사료효율의 악화, 위생비의 증가 등 번식성적의 개선이 경영개선에 결부되지 않은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생에서 육돈출하까지의 전기간 발육이 양호하고 돼지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양관리를 관

철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각의 발육 단계마다 발육상황을 체크하고 목표로 한 발육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양관리를 다시 살펴보고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육목표치의 단계마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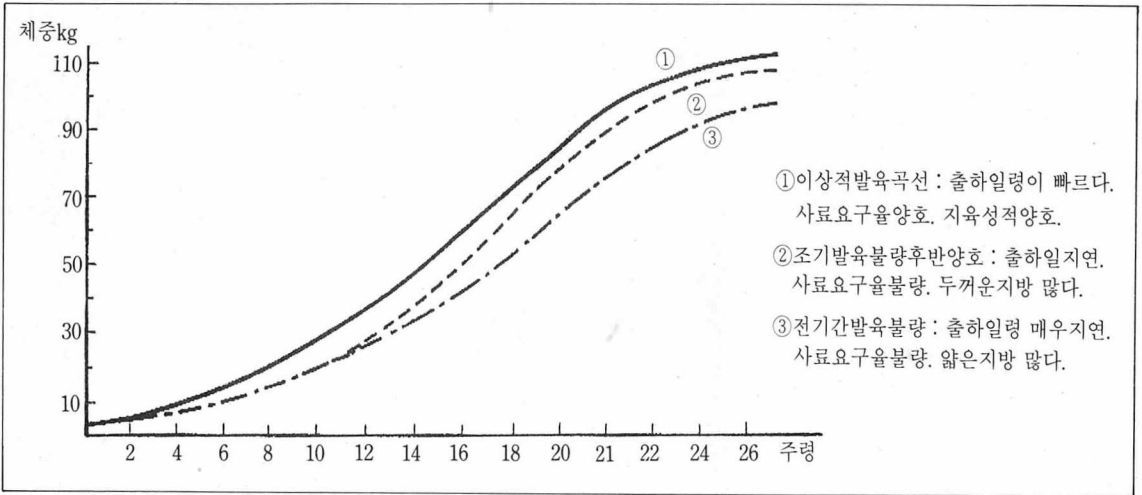
### 1. 포유중의 체중

생후 20일령 포유중의 체중은 최저라도 5.0kg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상으로는 6.0kg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유중 모돈의 영양, 사육 환경의 개

〈표1〉 비육돈의 사료급여 체계 및 성장(예)

	일령	체중(kg)	급여량(1일두당)	기간내섭취량(kg)
1 단 계	10~15		20~50	4 (3~5)
	16~20		50~100	
	21~25	6~8	100~150	
	26~30	8~10	150~300	
2 단 계	31~35		300~400	22 (19~25)
	36~40	11~13	400~600	
	41~45	13~17	600~800	
	46~50	18~20	800~1,000	
3 단 계	51~60	20~25	1~1.3	120 (110~130)
	61~70	25~30	1.3~1.6	
		30~40	1.6~1.8	
		40~50	1.8~2.0	
4 단 계		50~60	2.0~2.2	140~150
		60~70	2.2~2.4	
	120~130	70~80	2.2~2.5	
		80~90	2.3~2.6	
계		90~100	2.3~2.7	283~290
		100~110	2.3~2.7	
	180(출하)			
			283~290	



〈그림 3〉돼지의 발육과 산육성(전농,1990)

(자료 : 양돈미니독본1991. 일본전국양돈협회)

선 및 자돈의 조기완전먹이에 유의해서 인공유를 그 기간 중에 1두 1kg 이상 채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2. 이유의 기간

이유는 일찍이 3주령, 이상적으로는 4주령으로 하고 4주령 시 자돈의 체중이 8.0kg을 넘도록 관리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 3. 이유후 7일 이후의 발육을 확인한다.

이유시 체중을 기록해 두고 7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체중을 달아보고 그때의 일당증체량(DG)이 300g에 도달하면 이상적이고 200g이면 보통 200g 이하면 사양관리를 다시 살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당증체량이 마이너스

가 된 농장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사양관리법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 4. 생후 2개월령의 체중을 확인한다.

2개월의 체중이 25kg에 도달하면 이상적이고 최저라인이라 해도 20kg을 넘지 않으면 비육돈군의 평균출하일령 180일의 목표도달은 할 수 없다(역자주 : 2개월령 또는 자돈사에서 비육사로 이동하는 시점의 체중을 측정하여 분만사 자돈사의 관리를 평가해보고, 비육사관리의 기준으로 삼는다).

### 5. 생후 4개월령의 체중을 확인한다.

65kg을 넘지 않으면 자돈기의 사양관리가 세밀하다고 판

정할 수 없다(샘플로 체중을 측정해 본다). 경계선에서 60kg을 하회하는 성적이 있다면 사양관리를 철저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시점에서 60kg을 대폭적으로 하회하는 돈군에 대해 극도의 지연을 회복한다면 발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지육으로 본 경우 적육량이 적고 전체의 지방량이 많고 특히 복지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가가 떨어지고 유리한 판매가 어렵다(역자주 : 보상증체를 하더라도 육질저하는 피할 수 없다).

좋은 육돈을 효율 좋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육단계마다 점검하고 사양관리의 기준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표1, 그림3 참조> **질문**